



‘이명박 시대’ 광주 전남 현안·공약 점검

1 광주 문화수도 제대로 되나

‘세계 문화상품 단지’ 재정 확보가 관건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해 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광주·전남 지자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 지역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는 하나, 오는 2월까지 계속될 ‘국정 로드맵’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향후 5년 관련 사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꼭 실천해야 할 공약과 지역 현안을 차례로 짚어본다.

사업비 5조 3천억원 조달 ‘난망’

“문화전당 건립과 동시 추진해야”

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인은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아

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

추기 위한 ‘세계문화상품 단지’ 조

성, 다양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문화상품단지’는 이른바 ‘문화상품의 생산·거래 시장’이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문화단지에 세계문화상품 생산·거래를 위한 쇼핑몰, 세계문화상품디자인 전문학교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

시기나, 재정확보 방안 등을 어떻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하느냐가 문화중심도시 광주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문화전당 조성사업과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세계 문화상품 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 사업이 ‘문화중심도시특별법’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췄으나, 문화산업 인프라는 취약하다고 본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7대 문화권 조성 ▲문화도시 기반 마련 ▲예술·문화·관광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돼 단계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2023년까지 여기에 들어갈 5조 3천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열쇠가 된다. 하지만, 국비 2조 8천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8천억원, 민자 1조 7천억원은 아직 구체적인 마련 방안이 없다.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문화전당’만 달랑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비닐하우스 ‘폭삭’

구급 29일 이후 나흘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7동이 폭설로 무너진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에서 한 농민이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社告

‘광일춘추’ 필진 바꿉니다

‘광일춘추’는 전국 주요지방 정론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들을 초대, 공동게재하는 목요일잡지입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경남신문, 강원일보, 경인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문 등 춘추 9개사는 무자본 새해를 맞아 각계 권위인사들로 새롭게 필진을 구성, 새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김택환 소설가 전홍택 소장 이서항 교수 김민영 처장

◇김택환 소설가

▲서울대 국문과 박사 수료 ▲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대표작 : 파리의 조선공녀 리심, 불멸의 이순신, 나 황진이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역임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 켈트주립대 정치학 박사, 캐나다 달 하우스 법대 박사후과정 ▲핵확산금지조약 한국대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2004총선 시민연대 공동 사무처장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光州日報社

광주·전남 ‘눈폭탄’

‘최심 적설량’ 41.9cm 최고 기록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눈덩이’

구급 29일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내리면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여객선, 항공기의 운항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려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현재 적설량은 ▲광주 28.2cm ▲장성 25cm ▲나주 19cm ▲영암 17cm ▲화순 16cm ▲담양 15cm ▲무안 9cm ▲진도 8.5cm ▲신안 7cm

지역	1일 오후 7시 현재 적설량	
	지역	적설량
광주	28.2	28.2
장성	25	25
영광	19	19
나주	19	19
영암	17	17
화순	16	16
담양	15	15
함평	12	12
무안	9	9
진도	8.5	8.5
신안	7	7

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배추와 부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복구 용두동·연제동·용전동·서구 유덕동·남구 대촌동 등 비닐하우스 21곳이 무너졌으며, 낡은 축사와 조립식 창고 등도 허물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교통사고=1일 오전 6시10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트레일러와 화물차·승용차가 3중 추돌해 트레일러 운전자 김모(47)씨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이날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상촌동 S주유소 앞에서 장모(여·29)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김모(여·32)씨의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치는 등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공통·항만 일부 통제=광양 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1일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의 여객선 4개 항로 70척 가운데 만바다로 나가는 20개 항로 27척이 발이 묶였다. 광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7시에 출발할 예정이던 김포행 KE 1300편을 비롯한 모두 10편의 항공기가 결항했으며, 무안공항도 2편의 항공기가 뜨지 못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안에도 ‘타르 불’ 어민들 방제 ‘비상’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생긴 기름 찌꺼기인 ‘타르(tar) 덩어리’가 전남지역 서남 해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전남도가 ‘타르’ 수거 작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급 27일 오전 영광군 법성면 안마도 북서방 8마일(15km) 해상에서 ‘타르 덩어리’가 첫 발견된 이후 신안과 무안 인근 해상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

전남도는 구급 30, 31일 이틀동안 방제인력 1천766명을 투입, ▲신안 지도·임자·증도·비금도 등에서 27t ▲무안 해제면 인근 해안에서 20t ▲영광 안마도 등에서 0.6t 등 모두 47t 가량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했다.

전남 서해안에서 현재 발견되고 있는 타르 덩어리는 지름 2~5cm 정도의 크기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해안에 눈이 많이 쌓인 데다 강풍과 풍랑 때문에 방제작업을 중단했으며, 파고가 높아 아직까지 해상 수산양식장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상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방제활동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소방본부도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780명을 동원해 신안·무안·영광·함평 인근 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하면서 ‘타르 덩어리’를 발견하는 즉시 방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미·일·중·러에 특사 파견

이명박 당선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또 이르면 ‘4·9 총선’ 이전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4개국에 대해 취임 전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이 이 당선인에게 보고됐다”면서 “시기는 1월 중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본과의 박진

간사 등을 포함하는 방미단 구성이 논의되는 등 인수위 내부에서 특사단 선정과 함께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할 친서 메시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사 파견 일정과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특사는 상호적인 것으로 우리 측에서 특사를 파견하기 이전에 미국 등에서 특사를 보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부 국가에서 이번달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시기와 방식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최고기이력추적시스템

우리 축산인과 소비자가 신뢰를 쌓아갑니다.

소 사육하는 농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관려기사 7면

최고기이력추적시스템? 소비자들께 알려주세요.

최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란?

소, 돼지, 닭, 오리, 양, 어류 등 축·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사용하면?

소, 돼지, 닭, 오리, 양, 어류 등 축·수산물 생산·유통·판매의 전 과정을 추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농림부, 광주시, 영암군, 축산물품질평가원, 축협, 농협, 수협, 어협, 수협, 어협, 수협, 어협

유명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대학교

전남과학대학